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

2023. 6.



보건복지부

1 검토배경

1. 현황

- '22년말 -8.2%의 수익률을 기록, 수익률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올해 4월 말 기준 8.6%의 수익률로 평가손실 회복

* 기금규모 : ('21년말) 948조원, ('22년말) 890조원, ('23.4월말) 976조원

- 장기 운용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나, 현재 기금은 성장기*에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

*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2040년 1,755조원 최대적립기금 이후 감소

< 주요 연기금 간 수익률 비교 (단위 : %) >

	국민연금	GPIF (일본)	CPPI (캐나다)	GPEF (노르웨이)	ABP (네덜란드)
2022년	-8.2	-4.8	-5.0	-14.1	-17.6
최근 3년 평균	3.7	4.3	6.6	2.9	-0.7
최근 5년 평균	4.2	3.3	8.1	4.2	2.2
최근 10년 평균	4.7	5.7	10.0	6.7	5.1
최근 15년 평균	5.1	3.8	7.6	5.5	5.1

-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 기금 수익률 1%p 제고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

2. 한계

① (운용기반) 기금 규모 대비 운용인력 부족

-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규모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캐나다·네덜란드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

* '21년 연구용역 결과(CEM 벤치마킹社) 적정 인력 규모는 812명(현재 437명)
최근 상황 반영을 위해 조직·인사 컨설팅 실시중(윌리스 타워스 왓슨, '23.7월 완료)

< 주요 연기금 운용규모 및 해외사무소 등 비교 ('22년말 기준) >

	국민연금	GPIF (일본)	CPPI (캐나다)	GPEF (노르웨이)	ABP (네덜란드)
자산규모 (조원)	891	1,892	550	1,494	716
인력 (해외사무소)	437(58)	154(-)	2,136(615)	550(278)	1,087(293)
1인당 운용규모	2.0	12.3 ¹⁾	0.3	2.7 ²⁾	0.7
해외사무소 현황	3개소	-	8개소	4개소	6개소

*1) 일본은 전액 위탁운용(韓, 47.9%) 2) 노르웨이는 대체투자 비중이 2.8%(韓 16.4%)에 불과

- 한국투자공사·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과는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만 유일하게 지방에 소재 ('13년 이전 결정, 17년 이전)
-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 수 증가('15) 96 → ('21) 348개) 등 인력유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방근무, 정주여건 등으로 불리한 상황

② (자산배분체계) 장기 운용목표 부재 및 투자의 자율성 저하

-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수익률 대부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이나,
 - 현재는 연금 부채 등 제도 운영을 고려한 장기 운용목표 없이 5년 단위의 계획을 기금위에서 매년 결정
 - * 전략적 자산배분(SAA)의 수익률 기여도는 약 90% 내외 ('19~'21년 기준)
- 또한 현행 자산배분 체계는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주식·채권·대체)만 투자가 가능한 경직적인 구조로,
 -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자산군(멀티에셋 등)에 투자 중이나 적극적인 투자 다변화·유연화는 어려운 상황
 - * '19년부터 '전술적 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약 7.6조원 규모 투자 중

③ (투자전략) 주요 연기금 대비 낮은 해외·대체투자 비중

- 그간의 성과를 보면, 해외·대체투자는 안정적인 수익률 기록
- * (최근 5년 평균('18~'22) 수익률) : (국내투자) 1.29% < (해외투자) 9.22%

< 최근 5년('18~'22) 평균 자산군별 수익률 (단위 : %) >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1.77	8.53	0.48	2.01	(국내) 8.96	(해외) 12.09

- 해외투자종합계획('20~'24) 수립 등 해외·대체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조직 역량 및 인력 부족으로 그 비중은 주요 연기금 대비 낮은 편
- * (대체투자 비중, '22년말 추정) (한국) 16.4%, (캐나다) 59.0%, (네덜란드) 33.2%
- * (해외투자 비중, '21년) (한국) 43.8%, (캐나다) 84.0%, (네덜란드) 96.0%

④ (투자환경)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국내 기업 가치 저평가

- ^소유분산기업의 참호 구축*, ^오너 기업의 사익 추구 등 지배구조 이슈가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
- * CEO가 주주의 적절한 감시·건제 없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는 문제

〈 참고 : 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 방향 및 여건 〉

□ 기금의 중장기 투자 방향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 필요
 - ‘국내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전성 확대 효과 등을 고려,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성과 제고
 -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과 ‘우월한 수익-위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확대**
- ⇒ 이를 반영하여,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안(SAA) 결정(5.31)

□ 기금본부의 대체투자 여건

- 대체투자는 ‘“약정-집행-회수”의 긴 투자흐름, ‘운용인력의 수에 따라 투자규모가 연동되는 특징에 따라 즉각적 비중 확대가 어려움
 - 적극적 대체투자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캐나다에 비해, 국민연금의 1인당 대체투자 운용 규모는 약 2.8배로 열악한 상황
- ⇒ 실질적으로 대체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확대 및 인프라 개선 등 운용여건 조성도 중요한 과제

< 대체투자 및 운용인력 규모 비교 (단위 : 조원, 명) >

구 분	캐나다(CPPI)	국민연금	배수
대체투자 규모(A)	285.6	146.2	2.0
대체투자 운용인력 수(B)	502	92	5.5
인당 운용규모(A/B)	0.6	1.6	2.8

2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

1. 전문성 높은 우수인력 유치

- ◆ ‘자산배분 관련 외부 전문가 확보, ‘운용인력 보수체계 합리화 및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 보완 등을 통해 우수인력 유치 기반 마련

1] 자산배분 전문가 영입

-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상응하는 보수 지급 추진 (우주항공청 사례 참고)

< (참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4.4), 국회 제출(4.6)) >

제9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업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운용인력 보수수준 합리화

- 성과급 지급체계 개편(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운용인력의 보수수준을 합리화하고,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 강화

* 기금본부 운용인력의 보수는 시장 대비 상위 50% 수준에 불과 ('22년 기준)

3]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 보완 방안 강구

-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에 소재한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을 보완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 ‘우수 운용인력 유치, ‘금융시장 네트워크 교류 강화 등 기대

2.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 중장기 자산배분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기금본부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1.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

-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연계한 중장기 기금운용 방향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을 설정
-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다양한 수익 원천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운용

* 수익률과 위험을 단순한 자산군(예: 주식·채권)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로, 캐나다('06년), 일본('14년), 스웨덴('01년), 뉴질랜드('10년) 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

<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포트폴리오 (장기 자산배분)	중기 포트폴리오 (現 전략적 자산배분)	단기 포트폴리오 (現 전술적 자산배분)
목적	장기 목표수익률 및 위험 선호도 제시	기준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수익 추구	정책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수익 추구
투자시계	장기 (20년)	중기 (5년)	단기 (1년)
자산구성	주식, 채권	주식, 채권, 대체	주식, 채권, 대체

- *기준 포트폴리오 수립 주체 및 절차,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 및 *기금위(전문위 포함)와 기금본부 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예시)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고, 기금본부는 구체적인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구조로 개편

2. 기금본부의 전문적 역량 활용

- 공단 내 감시기구(준법감시인*·감사 등) 등 기금본부의 전문적 운용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검토

*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수립하고,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 시 이사장·감사에 보고하는 사전적 내부통제 기능 담당 ('07년~)

3. 해외·대체투자 확대

◆ ‘해외사무소 확대 및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수익률이 양호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

1 해외사무소 확대

- 주요 금융중심지 및 신흥성장국(Emerging Market)에 해외사무소(現 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주요 연기금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비교 >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CPPI (캐나다)	GPFG (노르웨이)	ABP (네덜란드)
3개소 뉴욕, 런던, 싱가포르	4개소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8개소 홍콩, 록셈부르크, 런던, 뭄바이,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시드니	4개소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상하이	6개소 홍콩, 브뤼셀, 뉴욕, 상하이, 베이징, 싱가포르

- ⇒ 美 샌프란시스코(IT·벤처 기업 다수 위치)를 우선 검토하고, 추후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성 검토

2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 해외사무소에 투자 결정 권한을 보유한 책임자급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보수 인상 등)
- ⇒ 전문성 있는 운용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 발굴 및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집행 등 기능 강화

3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

- 전통자산(주식·채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계약 규모가 큰 대체투자의 특성 고려 시, 투자실행인력 증원은 필수적
- * 캐나다(CPPI) 수준(16.4→59.0%)으로 대체투자 규모 확대(130→300조원) 시 투자규모에 상응하는 운용 인력 확보 필요

- ⇒ 1인당 운용 규모 감소를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그간의 기금운용본부 정원 증원 경과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346	360	396	437	437
전년 대비 증감	+6	+14	+36	+41	-

4. 수익률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강화

◆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 전반의 가치 제고 유도

1.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 장기·대형 투자자인 국민연금(국내증시의 6%)의 수익은 개별 기업 보다는 국내 기업 전반의 가치 제고와 연동
 - 소유분산기업 등 국내 기업들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의결권 행사 기준 등 개선 방향 제시

2.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 구조 마련

- 기금본부 內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구성·운영(한시적)
 - * 10명 내외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소유분산기업 등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기준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23.下~)

3. 향후 계획(안)

- (6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6.23)
 -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후, 주요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보수체계 합리화, ^인력 확대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 필요 과제는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 (7월~) 자산배분체계 개편 과제 구체화 추진
 - 복지부, 연금공단,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추후 기금위에 보고

□ 해외 연기금 대비 비교 분석

- 글로벌 CEM(Cost Effectiveness Measurement)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 수준 분석
 - (분석 방법) 해외 연기금 Peer Group 비교를 통한 ^비용효과분석, ^성과목표, ^인력규모, ^리스크 관리 등 주제별 심층 분석

※ 인력규모 도출시 Peer 그룹 (8개 기금)

- AustralianSuper, CalPERS,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Korea National Pension Fund, Stichting Pensioenfonds ABP, Stichting Pensioenfonds Zorg en Welzijn,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 자산 규모, 운용방식, 파생상품의 활용, 아웃소싱 의존정도 등에 있어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그룹으로 구성

- (분석 결과) 기금운용분부는 해외 연기금 대비, 약 355명 부족한 상태*, 기금수익률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한 Catch-up 필요

* '22년 기준, 선진연기금 수준 운용인력 812명, 기금본부 인력 457명(준법지원실 인력 포함)

< CEM 벤치마킹사 개요 >

- (명칭) CEM Benchmarking Inc. (소재지 : 캐나다 토론토)
 - * 대규모 기금관리조직(국부펀드, 글로벌 연기금)의 투자·행정 정보를 객관적 제공(민간업체)
- (설립년도) 1992년 (설립자 Keith Ambachtsheer, John McLaughlin)
- (주요사업) 포괄적인 투자관리비용 분석을 통해 투자수익, 비용, 위험, 유동성 등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의 비교자료 보고서 제공
 - * 미국 CalPERS-CalSTARS, 네덜란드 APG, 캐나다 CPPIB-OTPP 등 세계 주요연기금이 대부분 회원사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공단은 2011년부터 참여

참고2

기금운용본부 조직·인사 컨설팅 개요

- 사업명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조직·인사 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기간 : 2023. 3. 1. ~ 7. 7.
- 컨설팅 기관 : 윌리스 타워스 왓슨
- 과업내용 : 환경분석·벤치마킹·인터뷰 등을 통한 조직·인사 전반 진단을 통한 단기·중장기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벤치마킹) 글로벌 연기금 등 조직 모델, 인사제도, 보상체계 벤치마킹
 - (조직재설계) 기금운용본부 미래모델 설정 및 중장기 조직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사무소 운용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적정인력 산정 및 직무모델 정립) 기금운용본부 및 해외사무소 등 적정 인력 산정,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모델 설계,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
 - (인사혁신 및 경력개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채용혁신 방안, 인사시스템 및 경력개발제도 개선
 - (성과·보상제도) 기금운용직·관리직·지원직군 성과평가제도 개선, 우수 인재 근속 유지를 위한 임금체계 등 보상제도 재설계

□ 개요

- (개념)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기금위 의결을 통해 매년 수립
 -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관점의 운용전략 수립 필요성에 따라 '06년부터 전략적 자산배분(SAA) 수립 중
- (주요 내용)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 결정
 - *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 (수립 절차)
 - 매년 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으로 중기자산배분 TF를 구성·운영
 - TF 논의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기자산배분(안) 마련,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참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 제8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시 하되,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단계

① (1단계) 국내외 경제전망을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

- (중장기 목표수익률*)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출은 임금상승률과 급여상승률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가치를 보존할 필요

② (2단계)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변동성 및 상관관계 도출

- (기대수익률) 거시경제 전망을 고려하여 주식배당할인모형 등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산출체계를 통해 도출
- (변동성·상관계수) 각 자산군별 벤치마크에 기초한 시장의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산출

③ (3단계) 정책조건 설정

- 특정 자산군 편중 방지, 기금운용 정책 방향 반영 등

④ (4단계) 자산배분 모형 적용

-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변동성 및 상관관계, 정책조건 등을 기반으로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자산배분 모형 적용

* 극단손실(CVaR) $\geq -15\%$: 95%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의 조건부 기댓값을 15% 이내가 되도록 자산배분안 마련

- 평균-분산 최적화모형(Mean-Variance Optimization Model) 적용

⑤ (5단계) 대안 검토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자산배분 비중의 급격한 변경 어려움, 국내주식시장 영향 등 고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대안 검토
- 현실적 제약* 고려하여 5년 후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예) 국민연금 기금 규모, 국내외 시장여건, 기금운용본부 역량 등

□ 2024-2028 전략적 자산배분(SAA) 결과

- (방향)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
 - ‘국내투자 대비 높은 성과, ‘분산투자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기금운용 성과 제고
 - 대체투자는 ‘높은 기대수익률 및 ‘우월한 수익-위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목표비중 확대
 - 향후 기금 유동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충격에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국내 주식·채권 비중의 점진적 축소

<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구분	2023년 말		2024년 말		2028년 말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비중(%)
주식	440.2	46.2	495.5	48.4	55% 내 외
국내주식	151.3	15.9	157.6	15.4	
해외주식	288.9	30.3	337.9	33.0	
채권	38.2	40.0	382.7	37.4	30% 내 외
국내채권	305.7	32.0	300.8	29.4	
해외채권	76.3	8.0	81.9	8.0	
대체투자	131.7	13.8	145.9	14.2	15% 내 외
금융부문 계	953.8	100.0	1,024.2	100.0	100%

□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

	해외주식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3.0	±6.0	±3.0	±0.5	±1.2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	±2.0	±4.0	±2.0	+2.0/-4.0	+1.2/-2.2
총 허용범위	±5.0	±10.0	±5.0	+2.5/-4.5	+2.4/-3.4

□ 투자 가능 신규 자산군 (예시)

유형	주요내용
사모부채	· 회사 규모·가치가 크지 않아 은행 대출·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 대출 또는 회사채·우선주 매입 등을 통해 투자하는 형태
멀티에셋	· 채권·주식·통화·원자재·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하이일드채권	· 정상채권과 부실채권의 중간에 위치한 고수익·고위험의 채권(예시 신용등급 BB+이하)
기타 대체투자	· 삼림·원자재·대체에너지 등 관련 펀드에 투자

참고4

기준포트폴리오 설명 자료

- (개념) 장기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예 : 주식-채권)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
- (추진경과) 기금의 장기 운용목표 설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7월부터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관련 기초 논의 시작
 - 투자정책전문위 심의(‘20.7~‘21.3월, 9회)를 통해 기준포트폴리오 설정 방식 및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 기금의 적정 위험수준을 위험자산 비중 65%로 설정한 기준포트폴리오 시범 구성(안) 기금위 보고 (‘21.3월)
- (기대효과) 제도와 연계한 장기 운용방향을 단순·명료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수익 원천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운용 가능
- (해외사례) 연금재정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금 목표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기금의 위험 선호도 표현

< 주요 연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비교 >

	CPPI (캐나다 국민연금)	GPIF (일본 국민연금)	AP3 (스웨덴 국민연금)	NZSF (뉴질랜드 기초연금)	GIC (싱가포르 국부펀드)
도입년도	2006년	2014년	2001년	2010년	2013년
시계	75년	25년	40년 이상	20년 이상	-
구성비중	해외주식 85% 국내채권 15%	주식 50% 채권 50%	주식 55% 채권 45%	해외주식 75% 국내주식 5% 해외채권 20%	해외주식 65% 해외채권 35%
목표수익률	5.79%	명목임금 상승률+1.7%p	실질수익률 3.5%	-	-
점검주기	3년	수시	3년	5년	-